정재민의 '죄와 벌' 낙원의 감옥

# 발리 해변 옆 악명 높은 교도소 돈 주면 마약도 되는 '뇌물 천국'

정 재 민
변호사·작가

1. 시간이 정지된 듯 평화와 낭만이 흐르는 인도네시아의 9발리 해변. 발리는 '낙원'뿐 아니라 '감옥'도 품고 있다. 2.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케로보칸 교도소의 수감자들이 지난해 11월 27일(현지시간) 열린 지방선거에 투표하기위해 교도소 내 투표소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 글은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서해안에 있는 스미냑 해변의 한 카페의 나무 테이블 위에서 쓰고 있다. 눈앞에서는 먼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따뜻하고도 시원한 바람을 서핑하듯 타고 와서 내 뺨에서 부서져 내리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 해가 떨어지면서 하늘은 이런저런 열대 과일을 뒤섞어 놓은 다채로운 빛깔의 칵테일 색으로 변해가서 긴 빨대를 꽂으면 단물이 주르륵 흘러나올 듯하다. 컴퓨터 바탕화면의 풍경 사진보다도 더 비현실적이다. 낙원이 바로 여기이다.

힌두교의 시바신처럼 발리 섬은 여러 개의 얼굴들이 있었다. 나는 우붓의 밀림에서 요가를 하며 고요한 평화를, 쿠타·짱구 해변에서 젊음의 정열을, 길리 섬에서 생애 첫 스쿠버로 거북이와 함께 헤엄치면서 자연을 탐험하는 재미를 만끽했다. 온화한 바람과 부드러운 바닷물에 몸을 적시고 발리인들의 순하고 착한 미소에 취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움츠리고 쪼그라들어 있었던 내 몸과 정신이 이완되고 늘어나고 펼쳐져서 발리 심해에 사는 고래만 한 몸이 담요처럼 펄럭이는 대왕가오리 '만타 레이'처럼 흐느적거리는 것 같았다.

### 수용자 80%가 마약 사범, 10%는 외국인

발리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자마자 구치소로 가서 세 분의 구속 수감자인 의뢰인들을 접견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치자, 문득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케로보칸(Kerobokan)' 교도소가 발리에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찾아보니 내가 있는 스미냑 해변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다. 낙원 같은 발리와 대조적으로 이 교도소는 과밀수용과 비인도적 환경으로 유명하다. 정원이 300명 정도인데 수감자가 1600명이 넘는다. 이곳에 있는 수용자들은 거의 80%가 마약 사범이고 10% 이상이 외국인이다. 발리에 여행을 온 외국인들의 범죄가 많다. 특히 옆나라인 호주 출신이 많다. 수용자들 국적이 20여 개국 이상이라 '죄수들의 유엔'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과밀수용과 열악한 환경 때문에 수용자들에게 정신병·자살·전염병도 많다.

반면, 이들을 지키는 교도관은 십수 명에 불과하다. 그러니 탈옥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1999년에는 289명이 탈옥했다가 하루에 104명이 잡히고 185명이 도주했다. 2017년에는 4명의 수용자가 땅굴을 파고 배수로를 통해서 탈옥했고, 그로부터 반년 뒤에는 톱으로 천장을 뚫은 뒤 6m 높이의 담장에서 뛰어내려 탈옥한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 교도소는 요즘 과밀수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교도소 정원은 5만 명이 조금 못 되는데 수용인원은 2024년 기준으로 6만2000명이 넘어서 수용률이 124.5%에 달한다. 그 이하가 되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수용자 1인당 2㎡라는 공간을 가까스로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은 수용률이 500%에 달하는 것이다. 그마저도 뒤에서 말하듯 뇌물을 주면 더 넓은 곳에서 지낼 수 있다니 좁은 감방은 수용률이 더 높을 것이다. 대신 이 교도소는 아침 6시부터 10시간 동안 수용자들이 넓은 뜰에서 생활한다고 한다. 고개를 들면 그 어느 나라 하늘보다 넓고 맑은 발리의 하늘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발리 날씨가 한여름도 아주 무덥지는 않다.

유튜브를 찾아보니 8년 전에 ABC 방송에서 만든 '악명높은 케로보칸 교도소의 일상(Life Inside Bali's Infamous Kerobokan Prison)'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다. 1주일 동안 케로보칸 교도소 안에서 촬영한 것이다. 교도소에서 촬영 허가를 내주어서 그런지, 의외로 좋은 모습들도 담겨 있다.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영어를 배우기도 하고 티셔츠에 프린팅하거나 은장식품을 세공하는 일들도 하고 복싱·축구·농구도 한다.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이 교도소 안에 들어와서 수용자와 함께 뜰에서 지낼 수 있다. 교도관들은 웃는 낯으로 수용자들을 친근하게 대하고 서로 대화도 많이 한다.

그러나 캐스린 보넬라(Kathryn Bonella)라는 호주 저널리스트가 이곳의 수백 명의 수용자를 인터뷰해서 쓴 '호텔 K'라는 책을 보면 이곳은 부패가 심해서 교도관들에게 돈을 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돈만 주면 섹스도 마약도 휴대폰 사용도 심지어 외출도 할 수 있고 인근 식당의 음식도 배달 받아먹을 수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섹스파티가 열리기도 한다. 호텔처럼 돈을 더 내면 더 좋은 감방으로 옮겨 주고 침대·선풍기·커튼·샤워기·음식, 심지어 안전까지 달라진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벼룩·쥐·바퀴벌레가 득실득실하고 정원의 5배를 초과하는 감방에 갇힌다. 교도관들은 식당 직원에게 돈을 주고 추가 음식을 만들어서 수용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팔아먹기도 한다. 최근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어느 교도관이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독거실 배정'을 해주었다는 일로 수사가 진행되어 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곳은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낙원'에 숨겨진 케로보칸 교도소
과밀수용·비인간적 환경으로 유명

수사도 재판도 뇌물이 형량 좌우
외국인은 일단 가둬 돈 뜯기도

맹그로브 숲처럼 얽힌 부패 사슬
'부패 30위' 한국도 늘 경계해야

이 책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수사부터 재판까지도 뇌물이 통한다고 한다. 많이 주면 수사를 아예 안 하거나 수사를 하더라도 건성으로 하며 재판에서 판사에게 뇌물을 주면 형량이 떨어진다고 한다. 반대로 뇌물을 조금만 주면 오히려 터무니없는 수사나 중형 선고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현지인보다 돈이 많은 외국인은 현지의 부패한 관리들이나 범죄자들이 일단 외국인을 고소해서 구속을 해 놓은 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더 많은 뇌물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사냥감'이 된다고 한다. 실제로 발리의 술집에서 술에 마약을 탄 다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현금을 받는 범죄자들이 기승을 부린 적도 있다.

이와 관련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샤펠 코비 사건이다. 2004년 샤펠 코비(당시 27세)라는 호주의 미용학교 학생이 마리화나 4.2kg을 들여오다가 체포되었는데, 본인은 무고함을 주장했으나 인도네시아 법원은 2005년 징역 20년 형을 선고하고 샤펠 코비를 케로보칸 교도소에 수감했다. 이에 전 호주 국민들이 들끓었고 호주 정부도 인도네시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했으며 이 사건을 소재로 한 드라마도 만들어질 정도였다. 그 바탕에는 호주의 젊은 여성이 인도네시아의 후진적이고 부패가 심한 사법시스템에 의해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을 것이라는(설사 그녀가 마리화나를 의도적으로 운반했다고 하더라도 징역 20년은 지나치다는 정서도 있었다) 깊은 불신이 있었다(그녀는 9년을 복역한 후 2014년에 가석방되었을 때 호주 언론이 독점 인터뷰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하기도 했고,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 경우 가석방을 취소하겠다고 해서 무산되었다).

### 한국서도 조폭 돈 받고 독거실 배정 논란

누사램봉안 섬에 머무를 때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의 맹그로브 숲에서 카약을 탔다. 맹그로브 나무 뿌리들이 구미호의 다리처럼 어지럽게 드리워진 물가 사이로 노를 저었다. 내 옆에서 카약을 함께 타며 안내해주던 삼십 대 중반으로 보이던 현지인 남자는, 발리인들이 흔히 하듯이 "니하오마"라고 인사로 국적을 물었다. 내가 "아임 코리안"이라고 하자 그는 "안녕하세요"라고 하고는 예상대로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관문으로 인도했다. 내가 "사우스"라고 답하자 또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려나 했는데 뜻밖에도 한숨을 쉬면서 씁쓸하게 웃더니 "인도니지아, 매니 꼬럽. 에브리웨어 꼬럽. 코리아 낫 매니 꼬럽"한다. '꼬럽'은 부패(corrupt)를 말하는 것이었다.

모든 곳에 뇌물이 통한다고 했다. 발리 숲에서 카약을 타다가 갑자기 부패 이야기를 들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순간, 발리 강가 양쪽을 시커멓게 뒤덮고 있던 맹그로브 나무줄기들이 부패의 사슬처럼 보였다. 카약에 내려서 산책길을 반대로 걸어오면서 최신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찾아보았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가 64점으로 세계 30위, 인도네시아가 37점으로 99위였다. 대한민국은 아직 인도네시아 정도는 아니지만, 요즘처럼 사기가 판치고 부패대응 시스템이 흔들리면 부패가 이곳 맹그로브처럼 무성하게 번식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았다.

귀국하자마자 구치소에 접견을 갔다. 한 의뢰인은 추가로 고소당해 수사를 앞둔 사건을 해명하기 위해 이런저런 서류를 잔뜩 겨드랑이 밑에 끼고 와서 내게 자세히 설명했다. 기소를 앞둔 또 다른 의뢰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해보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어서 잘할 수 있다고 답해주고 일반 재판과의 장단점을 설명해주었다. 마지막 의뢰인은 지난번 재판 때 재판장이 "변호인 말이 일리가 있네요"라고 하고 검사에게 공소장을 (경미한 쪽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해서 억울함이 풀릴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재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법시스템도, 변호사 생활도 아직은 낙원보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 입니다〉

정재민 변호사, 작가. 20여년간 판사, 법무부 송무심의관 등으로 일했다. '보헤미안 랩소디'(세계문학상 수상작) 등의 소설과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범죄사회' 등의 에세이집을 냈다. 현재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이혼·상속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since 1982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